

# 판이 바뀌고 있다

-중국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생존전략-

2017.2. 6.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정영록 교수

yrcheong@snu.ac.kr

## 목차

---

1. 개괄
2. 현상, 영향
3. 어떻게 가능했을까?
4. 우리는 어떻게 해야?

# 1. 개괄

---

OO그룹의 임원강연

## ‘중국은 개념이다.’

중국문제(모리 가즈코 등)

Xanadu (John Man)

조선잡기 (Honma Kyuske?)

북학의 (박제가)

# 1. 개괄

---

- Shale Gas 혁명=> 미국의 복귀?
- 2015년 중국경제 10.8조 달러➡ 2016년 11.5조달러 이상  
인당소득 U\$8000

(단, 2억 5천만명, 1.8만 달러,  
5천만명 8만 달러):

\*인구 13.7억 / GDP의 60% 민간에 배분 가정

- 3.3조 달러대의 외환부유고 + RMB국제화➡기적

# 1. 개괄

---

○ 가령, 2025년은? (6% 성장시 18~20조달러 +) // 환율에 따라서 가변적일 것

- 인당소득 U\$1.43만

. 단 2억 8천만 명 3.4만 달러,

. 5.6천만명 13.7만 달러 상당

\*가령 14억 인구/ GDP의 60% 민간에게 배분 가정

- 1978년 경제 1500억 달러, 인구 9.6억명, 인당 소득 155달러

- 1992년 한-중수교의 해; 경제 4200억 달러, 인구 11.7억, 인당소득 360달러

# 1. 개괄

---

○ 결과: 현재 세계발전 기여도 최대국가는??

\* 약 3%의 세계성장 가운데, 중국이 몇%나 기여하고 있을까?

2014(16.1% 대 38.4%)

\* 1945년 이후 상당기간 미국이 세계발전을 끌고 있었음.

\* 1949년에는 거의 독보적

\* 가령, 1981년 계산시 (31.4% 대, 6.1% )

---

**결국, 판이 바뀌고 있다고 봐야**

**➔ 새 판 짜야**

## **2. 현상, 영향**

---

### **1. 정치.외교**

#### **(1) 정치**

- 중국공산당 집권력 강화
- Xi Jinping 주석의 권위강화 // 지속발전, 친서민, 혁신 강조
- 태자당, 공청단의 구분 애매모호화 //
- ➔ 현장경험 중시 (무늬만으로는 부족 / 실적으로 증명해야)

## 2. 현상, 영향

---

(2) 외교/안보 : 전략적 대화(미.중), 신형대국관계론, 특히 2001년 9.11이후.

- 결국은 미-중 대타협이 있을 것.

아니면 공멸 (\*유고슬라비아 중국대사관 오폭<1999.5>/ 2001년 해남도 불시착 해결)

- 잠수함/ 항공모함의 경쟁

\* 구소련의 실패: betting을 따라가게 해서 스스로 무너져 내리게  
(석유 major 수급가격 조작?)

- 대륙 관통운하 장악 움직임

## 2. 현상, 영향

---

### 2. 경제

→ 내수경제로 전환심화.가속 // 동시에 실물.자본시장 세계최대큰손  
(세계최대 외환보유국)

#### (1) 실물부문

- G2, but 세계최대 무역국; 2013년부터

- 실물투자부문: 해외최대투자국, / M&A

- 세계고속철도, 고속도로

- 2015년 fortune 500대 기업 중 106개 (미국 130개)

## 2. 현상, 영향

---

### (2) 금융부문

- 세계 10대 은행 중 4개; 은행자산 기준
- 지역 개발은행개설, 세계개발은행 판도 변화 (NDB/ AIIB in 2015)

### (3) 창조/혁신/원천기술 부문

\*삿이 솟고 있다고 봐야 (2008 Olympic/ 2010 EXPO)

## 2. 현상, 영향

---

### 3. 사회.문화; 예술품의 auction→최대시장

- 유명 영화의 배경에 꼭 중국이 포함.
  - : Mission Impossible, 중국은행꼭대기 은행회관, 상하이인근 周庄의 沈萬山씨 고택
  - : 007에 Hong Kong, Macao,
  - : 중국판 Iron Man에 중국배우, fan bingbing// >영화 King'sman
- Cambridge University 박물관 보물 도난사건?
- \*크리스티 경매시장을 달구는 중국
- \*세계 500대 교역가화가중 중국계는 몇 명?/ 50대 최고기화가에는 몇 명?

중국의 근대 3대화가

중국의 현대 3대화가

## 2. 현상, 영향

### 4. 세계관광업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음.

- 2016년 구정때; 세계백화점 물건이동이 동이 났다는 것 / 1억 해외여행객 시대(물론 과다계상 / 홍콩이 60%정도) // 2016년 1.2억명
- \* 실지로 우리나라에는 어느 계층이 오는가? (주로 소득 1.6만 달러 계층)
- 자신과 다른 것에 대한 의미를 중시, “한류”도 냉철하게 그 하나로 보아(열광하는 것은 아님) → 중국인은 가장 동물적?!!

### 5. 중국적 가치 정립 시동; 인본주의 // 2008년 Olympic 개막식

## 3. 어떻게 가능했을까?

- 대국 DNA / 역사성 / 문화적 DNA (상인기질) → 국가흥망 cycle과 중국의 꿈
- \* 실력도 실력이지만, 운도 좋아야, timing
- 결국 국민의 인식이 바뀌어야 / Arthur Lewis
- \* 너무 모호하지만, 인간, 인적자본,
- \* 공산당, Deng Xiaoping 지도력,
- \* 경제적 부존자원(Jewish)
- \* 세계화교권 (HK, SG, TW의 존재)

### 3. 어떻게 가능했을까?

---

- 2001년 9.11: 미국의 퇴보를 상징 하는가?
- 2001년 WTO 가입 (이후 FDI가 몰려감 1998~2007 누적: 6047억 달러)//
- \* 2008년 GFC (세계금융위기: Global Financial Crisis)
- 2008 GFC + 세계 중국인 유학생 예비인력과의 결합 → 기술의 비약적 도약 (quantum jump in technology upgrade)

### 3. 어떻게 가능했을까?

---

- 1978년 현재, 과거 시장경제에 익숙한 사람의 복귀, 이들이 불씨를 지피고, 서구를 포함한 세계학문과 유학생들의 협력으로 개혁. 개방 천명 1세대 지난 2008년부터 또 다시 본격적 발전으로 전환
- \* 인적자본: 세계유학생, 수백만명 전 세계로 나감 (정식 교육부 통계)/ 단기교육 불포함
- 2015 AIIB 출범 + 고속철도사업의 지속기반 → 신실크로드(일대일로) 채택 가능 (결국은 Eurasia 통합꿈?)



## 4. 우리

---

### ■ 중국(경제)실체 인정해야 / 새 판 짜야/ 주류사회의 변동 주시해야

- 부천상공회의소에서의 FTA 강연
- 마장동 인근의 프란체스코 신부집에 점심을 위해 줄을 서고 있는 것에 우울하기 짝이 없었다.  
(부동산 bubble burst 경착륙론, 비민주적 공산당독재에 따른 중국붕괴론, 극심한 제도의 불투명성, 통계과장론, 시기심과다 등은 더 이상 No)
- 그렇게 되어도 우리에게 큰 재앙 (우리도 자유롭지 못함)
- 주도, 관리, 기술.자금우위, 활용 이라는 단어도 그만➔ 협력, 공존, profit sharing?

## 4. 우리

---

### 1. 국가목표 재정립 / 재구성 / paradigm shift시기임

### 2. 학교

- 궁극적으로 교육체계의 재편이 필요 (세계화=미국화, 서구화), 진정한 세계화 시대의 교육체계➔한국적 교육체계의 확립 필요성
  - \* 홍동백서와 교육
- 중국어 제1.5외국어화, 전국민의 중국전문가화 (10만 전문가양성론은 낙후, 구태)
- ABC카드의 실패 (길목을 지키는 선제적인 정책의 미비? 없었다➔정치권의 낙후성)
- 중국(경제)교육

## 4. 우리

---

### 3. 정부

- 10조 달러 중국; 판을 바꿔야
  - \* 비서와 업무문화
  - \* 재물조사; Zero Base Budget 작업 (새 판 짜는데 도와야)
- 외교: 북경대사관의 역할 개편필요성
  - \* 외교는 내치다 →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시키는 것이 외교적 자원

## 4. 우리

---

### 3. 정부

- 역내경제; 위해, clark 기지, danang골프, 보험료 내는 대신에(정지) 그 돈이면 먹고 있다가 온다; 물론 돈 있는 계층이지만,
  - \* 동 아시아는 7~8개 경제권 가능
  - \* 관광벨트 조성론 + 지방자치단체의 유희지활용
- 우리는 반도국가로 다시 복귀? + 거대인구국가에 대한 대응 → 신금수강산
  - \* 특수성 보존, 이탈리아식 발전(홍콩식 가미?)

## 4. 우리

### 4. 기업; 중국 내수에는 얼마나 강한가?

- \* 중국투자 우리기업체: 매년 3월 15일 세계 소비자의 날 행사 시: 전전금금
- 선점, 관리, 기획, 혁신
- 비즈니스의 핵심능력(core competence): 기술력, 가격경쟁력, 세계제조업서클의 일원(GPN: global production network) → 탄탄한 하청업체
- China Fund(국내 자산 제 값 받기 운동)
  - \* 중국자금 유입에 대비해야// 특히 한-중FTA체결 이후 더더욱 그럴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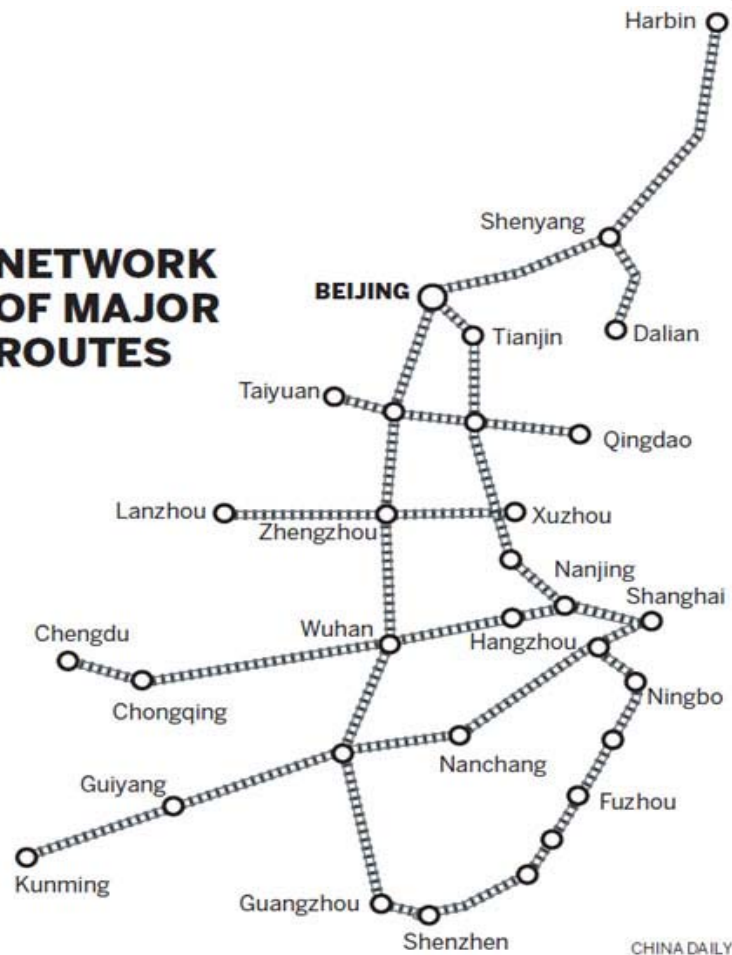
### 〈부표〉 중국의 지역경제권(2015년 기준)

\*자료: 중국의 공식 통계자료 와 지방 통계등을 필자가 종합 정리함.

	면적(Km2)	인구(만명)	GRP(억RMB)	1인당소득	
				RMB	US\$
베이징	16,410	2,171	22,969	105,799	17,101
톈진	11,917	1,547	16,538	106,904	17,279
수도경제권	28,327	3,718	39,507	106,259	17,175
상하이	6,340	2,415	24,965	103,375	16,709
항조우	16,847	889	10,054	113,089	18,279
쑤조우	8,488	1,047	14,504	138,529	22,391
난징	6,596	819	9,721	118,694	19,185
닝버	9,816	764	8,012	104,883	16,953
화둥경제권	48,087	5,934	67,256	113,341	18,320
충칭	82,402	3,017	15,719	52,101	8,421
청두	12,132	1,418	10,801	76,171	12,312
서부경제권	94,534	4,435	26,520	59,797	9,665
선전	1,953	1,036	17,502	168,938	27,306
광조우	7,434	1,350	18,100	134,074	21,671
화남경제권	9,387	2,386	35,602	149,212	24,118
우한	8,494	1,022	10,956	107,202	17,327
창사	11,819	722	8,510	117,867	19,501
화중경제권	20,313	1,744	19,466	111,617	18,041
선양	12,942	826	7,280	88,136	14,246
따리엔	13,237	688	7,732	112,384	18,165
창춘	20,532	768	5,530	72,005	11,639
동북경제권	46,711	2,282	20,512	90,018	14,550

## 중국의 고속철도망

### NETWORK OF MAJOR ROUTES



---

감사합니다